

태국 여름 계절학기 파견 수기

영어영문학과

한예진

지난 4주간 한국을 떠나 처음보는 사람들과 처음 가보는 국가에서 일상을 보냈다. 길어야 5,6일 정도 패키지를 낀 여행 정도만 다녀온 나에게 4주는 꽤나 긴 기간으로 느껴졌고, 첫 기숙사 생활이기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저 영문학과로서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고 마침 ASEAN 강의는 경영학부에서 배워온 수업을 적용하여 더 알아 갈 수 있었기에 방콕에서 진행되는 UTCC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큰 시작이었기 때문에 방콕에 도착할 때까지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긴장이 풀린 것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외국 학생과의 교류 덕분이었다. 나는 주전공이 영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리스닝과 스피킹이 가장 부족했고 또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본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원어민 수업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한국어를 듣기 힘든 국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본교의 영어강의 및 원어민 수업이 떠올랐고, 영어에 대한 어색함보다 친밀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었다. 또한 버디, 또는 타 교환학생간의 교류는 영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나에게 영어란 언어보다 학문에 가까웠다. 기원을 알아야 하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파해쳐야 하며 문학적으로 많은 역사가 있는 탐구 대상으로 생각했다. 영어영문 중 영문 쪽에 더 가치를 두던 학부생으로서 언어의 가치를 잊었으나 이번 방콕 생활을 하며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중국, 독일 등 많은 세계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했고 그 누구도 서로의 발음이 얼마나 원어민과 비슷한 지 평가하지 않았다. 내게 스피킹은 항상 누군가가 문법과 억양, 발음을 평가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쉽게 입을 떼기 힘들었는데 평가당하는 두려움보다 의사소통을 하고싶은 욕구가 커져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 역시 원어민이 아니기에 오로지 영어의 소통 기능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막바지엔 가벼운 일상 대화를 긴장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출발 전, 영국이나 미국 대신 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4주간 공부를 끝마치고 든 생각은 오히려 영미에 갔다면 원어민을 중심으로 많은 타국 교류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발음 및 문법 지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어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만약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스피킹과 리스닝에 묶여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영미권에 대한 교환학생보다 태국과 같은 제3의 국가를 추천하고 싶다. 수많은 세계인으로부터 세계 공용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